

四時用藥에 관한 研究

신호동**

동인당한의원

Research on Usages of Herb Medicine Based on the Four Seasons

Ho-Dong Shin**

Dongindang Oriental Medical Clinic

Abstract

Objectives : The author studied on criterions and concepts of the four seasons, and also examined about outbreak, rise and decline, remedy and prescription of diseases.

Methods : We researched that increase and decrease of vigor and up and down of Yin and Yang in human body are controled by sunlight through the literature.

Result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s five viscera and four seasons has the homeostasis as a result of the compatibility and rivalry process. Between of the human's five viscera and four seasons, the spleen plays important role of four seasons. The reason is that the liver, the heart, the lungs and the kidneys manages the 72 days in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repectively. However, the spleen arranges and regulates the liver, the heart, the lungs and the kidneys through the 18days of each season's ending, respectively. These are the basis of Lee Dong Won's(李東垣) 'The Spleen Strength Theory'(補脾論). In four seasons, We make prescription harmonized with the energy such as rising in spring, floating in summer, astriction in autumn, preservation in winter.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riterion and the conception of the four seasons may be important role to remedy for diseases and to prescribe and to use of medicine.

Key words : four seasons, Yin and Yang, sunlight, human's five viscera

서론

인간은 천지(天地)에 상응하여 형성(形成)된 소우주(小宇宙)이다. 그러므로 천지간(天地間)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생존(生存)의 외적(外的)인 조건인 시간, 공간, 방위, 장소¹⁾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必先歲氣 無伐天和”²⁾라고

하여 醫者는 용약(用藥)을 할 때 오운(五運)과 육기(六氣)에 의한 사시음양(四時陰陽)의 세기(歲氣)를 알아서 천화(天和)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의미(意味)는 운기(運氣)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평기(平氣)가 사시음양(四時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평기(平氣)를 이루어서 천지간(天地間)의 만물에 음양(陰陽)의 출입승강(出入升降) 기전이 형성되고, 또한人氣의 허실(虛實)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 제1저자, 교신저자 : 신호동,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6 신광빌딩 2층 동인당한의원

· Tel : 02-481-1161 · E-mail : chigil75@naver.com

· 접수 : 2008년 5월 14일 · 수정 : 2008년 6월 12일 · 채택 : 2008년 6월 20일

는 이치를 모르고서 용약(用藥)하면 양의(良醫)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 중의 用藥門 <近世論醫>³⁾ 조문(條文)에 “근세의원을 논하는 데는 劉河間(完素)를 주장하는 이도 있고 張易州(元素)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⁴⁾ “張氏의 用藥은 사시(四時)의 음양승강(陰陽升降)에 의존(依準)해서 약의 용량을 증손(增損)하는 법을 취하였으니, 이것은 《黃帝內經》에 있는 사기조신(四氣調神)⁵⁾의 의미(意味)에 치중한 것으로 의원이 이것을 모르면 망행(妄行)인 것이요, 劉氏의 用藥은 新과 陳을 대사(代謝)시켜서 조금이라도 불울(拂鬱)한 것이 없도록 한 것이니, 이것은 조화(造化)가 신신(新新)하여 머물지 않는 의미(意味)에 치중한 법이니 의원이 이것을 모르면 의술이 없는 것이다. 二子의 장점을 取하고 단점을 심찰(審察)하면 치병에 만전(萬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장(海藏)⁶⁾은 말했다.

張氏는 사시(四時)의 음양승강(陰陽升降)을 기준해서 용약(用藥)하는 것을 말했으며, 劉氏는 인체의 내적조건¹⁾에 따라 용약(用藥)하는 것을 강조했다. 張氏의 주요업적은 약리학설 방면에 있으며, 그는 운기학설(運氣學說)에 대해서 비록 추승(推崇)을 했지만 실제로 간지(干支)를 사용하여 모년(某年)의 모기(某氣)가 승(勝)한다는 것을 추산(推算)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논하지 않았다. 다만 일년지중(一年之中)에 계절(季節)적인 기후의 부동(不同)으로 인하여 치병용약(治病用藥)도 응당 부동(不同)해야 한다는 방면에 대해 중점(重點)을 두었다⁶⁾.

실제 임상(臨床)의 용약(用藥)에 있어서는 내적조건¹⁾과 외적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데, 필자는 외부조건인 사시(四時)의 변화로 발생하는 溫熱(陽氣, 升浮) 寒涼(陰氣, 降沈)의 우주간(宇宙間) 기변화(氣變化)는 인체의 表(外·裏(內))와 上下의 음양승강(陰陽升降)의 기변화(氣變化)를 나타낸다²⁾는 것에 중점(重點)을 두었다.

사시(四時)의 변화로 생기는 한열온량(寒熱溫涼)의 외부적인 기후변화는 인체의 표리내외(表裏內外)의 음양활동(陰陽活動)과 기혈순환(氣血循環)에 영향을 주어서, 생명활동(生命活動)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질병발생(疾病發生)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四時의 변화주기(變化週期)는 1년, 1일의 단위내(單位內)에서 이루어진다.

고인들은 일월성진(日月星辰)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연월일시(年月日時)의 시간을 파악하였는데²⁾, 특히 태양(太陽)을 중요하게 여

겼다. 모든 생명체는 주야(晝夜)와 사시(四時)에 따른 태양의 양기(陽氣)를 기본으로 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람의 정기(正氣)도 태양의 양기(陽氣)에 따라 성쇠(盛衰)가 정해지기 때문이다.⁷⁾

고인들은 1년 365일을 24등분, 12월, 6등분, 5등분, 4등분하여 기후관측(氣候觀測)과 농어업(農漁業)의 생활 및 의학등에 응용하였는데, 이것이 역법(曆法)으로는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며, 운기(運氣)로는 《黃帝內經》에서 제시한 오운육기(五運六氣)의 학설⁷⁾이다. 운기학설(運氣學說)의 중요성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의사는 반드시 천지(天地)의 운기(運氣)를 알아야 한다”³⁾고 하였다. 운기학설은 《黃帝內經》과 劉河間의 <素問玄機原病式>과 《東醫寶鑑》 雜病篇中 <天地運氣門>에서도 소개되었고, 실제로 四時와 주야(晝夜)의 변화에 따른 용약법(用藥法)이 《東醫寶鑑》 전체에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朴¹⁾은 사시변화(四時變化)에 따라 인체가 상응함을 강조하였고, 《東醫寶鑑》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에 따른 용약법(用藥法)을 임상에서 실제 응용하였다. 이것은 사시변화에 따라 인체의 形·色·脈·症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질병의 통체적(統體的)인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천지간(天地間)의 사시(四時)로 인한 음양기(陰陽氣)의 성쇠변화(盛衰變化)와 기후변화(氣候變化)가 인체의 생명활동과 질병발생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 하였다. 천지간(天地間)의 사시적(四時的)인 조건에 따른 용약(用藥)에 대하여는 《黃帝內經》, 《東醫寶鑑》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고찰과 임상경험(臨床經驗)을 통하여, 임상적 운용에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고찰하여 지견을 얻었기에 발표하는 바이다.

연구목적 및 방법

1. 研究目的

질병의 통체적(統體的)인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時間)과 사시음양(四時陰陽)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임상에서 인체질병발생(疾病發生)의 종류와 성쇠주기(盛衰週期)가 1년과 1일의 四시에 따라 다름을 알게 되었고 처방(處方)과 용약(用藥)을 할 때에 반드시 시간에 따른 자연조건과 인간의 음양기(陰陽氣)의 성쇠

(盛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천지간(天地間)의 음양기(陰陽氣)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평기(平氣)는 인체의 음양기(陰陽氣)의 태과불급(太過不及)과 일치한다. 이것은 자연과 인체는 상응(相應)한다는 한의학 근본이론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診斷)과 용약(用藥)을 할 때는 자연 상태의 음양기(陰陽氣) 태과불급(太過不及), 평기(平氣)를 판단해야 한다. 한의학의 목적이 질병치료와 예방에 있다면 인체 진단의 기준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내·외적인 조건의 해석관점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변화의 진리와 불변의 진리 관점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용약(用藥)을 할 때에 시간적인 기준을 사시(四時)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조건, 인체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자연(自然)과 인체(人體), 용약(用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다.

2. 研究方法

1. 시간적인 부호(符號)는 십이지(十二支)를 기년(紀年; 紀-記의 뜻), 기월(紀月), 기일(紀日), 기사(紀時)로 사용하였으며, 월(月)은 음력(陰曆)을 기준하였으며 역법(曆法)은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을 사용하였다.

2. 사시(四時)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첫째로 시간단위(時間單位)는 1년과 1일을 四時로 나누었으며, 운기는 1년과 전반년(前半年), 후반년(後半年)으로 나누었다.

3. 연구방법은 종술적인 방법위주로 천지(天地), 시간(時間), 운기(運氣), 약물(藥物), 용약(用藥)의 이치를 탐구하였으며, 그 주요 참고문헌은 《황제내경(黃帝內經)》, 《유경(類經)》, 《동의보감(東醫寶鑑)》이며 다음으로 《의학계원(醫學啓源)》, 《동원십종 의서(東垣十種醫書)》, 《의학입문(醫學入門)》 등이다. 또한 기타문헌을 참고 하였다.

4. 자연, 인체, 용약의 해석방법은 한의학의 근본원리인 음양오행사상론(陰陽五行四象論)이며, 해석의 방법은 절대와 변화의 진리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본 론

1. 일년(一年)과 일일(一日)의 사시(四時) 개념

1) 일년(一年)의 사시(四時)

1년 사시(四時)란 1년 365일을 춘하추동(春夏秋冬)

으로 구분한 것이다. 즉 천지간(天地間)에서 음양기(陰陽氣)의 승강영축(升降盈縮)에 따라 춘하추동의 한열온량(寒熱溫涼) 한 기후가 1년을 주기(週期)로 순환한다. 춘하추동(春夏秋冬)에서 춘추(春秋)의 절(節)에 속하는 춘분(春分), 추분(秋分)은 음양한원(陰陽寒暄)의 기가 교차되는 지점이고, 하동(夏冬)의 절(節)에 속하는 하지(夏至), 동지(冬至)는 음양기(陰陽氣)가 극(極)해서 생하는 지점이다. 또 고인들은 1년 365일을 72候, 24氣, 12月, 8節, 6氣, 5季, 4時, 전반년(前半年), 후반년(後半年)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에 활용하였다.

24절기(節氣)의 12月 배속(配屬)에 대하여 《類經圖翼》의 <二十四氣斗綱圖>⁸⁾에는 “일년(一年) 사시(四時)는 십이진(十二辰)에 의해서 통술(統率)을 받는데, 두강(斗綱)이 땅의 방위(方位)인 십이진(十二辰)을 가리키는 곳이 절기(節氣)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북두칠성(北斗七星)으로 절기(節氣)를 알 수가 있는 방법으로 하루 中에서 黃昏(戌時), 夜半(子時), 평旦(寅時)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每月)과 매절기(每節氣)는 북두칠성(北斗七星)에서 첫 번째별을 괴(魁), 다섯 번째 별을 형(衡), 일곱 번째별을 표(杓)라고 하는데 이들 삼성(三星)이 십이진(十二辰)을 가르키는 곳으로 월(月)과 절기(節氣)를 정(定)할 수 있는 것이다(Fig. 1, 2), (Table 1).

圖 綱 斗 氣 四 十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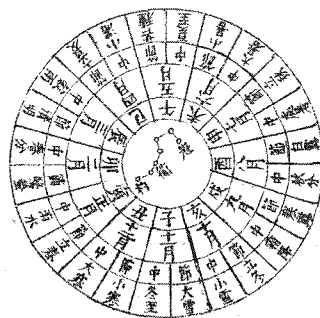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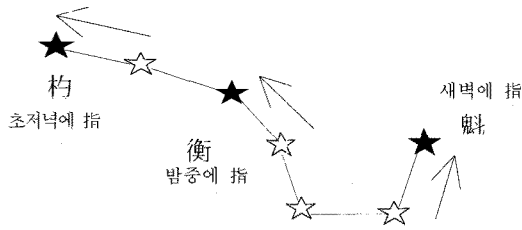


Fig. 1. 二十四氣 方位 및 節氣

2) 일일(一日)의 사시(四時)

1日 사시(四時)란 태양의 주기적 시간 변화단위를 1년 사시(四時)의 같은 구분원리(區分原理)를 적용하여 구분(區分)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黃帝內經》의 <靈樞·順氣一日爲四時>에 “황제(黃帝)가 말하기를 사시(四時)의 기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노라. 기백(岐伯)이

1. 北斗七星



2. 가령 正月에 북두칠성의 杓, 衡, 魁가 寅을 가르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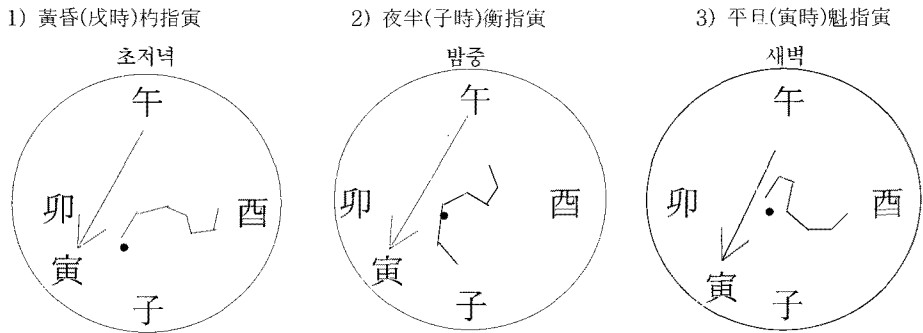


Fig. 2. 斗綱 解表 例

Table 1. 1년 四時와 12月 24절기의 관계

四時	春	夏	秋	冬
月支	寅·卯·辰 1(孟) 2(仲) 3(季)	巳·午·未 4(孟) 5(仲) 6(季)	申·酉·戌 7(孟) 8(仲) 9(季)	亥·子·丑 10(孟) 11(仲) 12(季)
二十四 節氣	1月 立春, 雨水 2月 驚蟄, 春分 3月 清明, 穀雨	4月 立夏, 小滿 5月 芒種, 夏至 6月 小暑, 大暑	7月 立秋, 處暑 8月 白露, 秋分 9月 寒露, 霜降	10月 立冬, 小雪 11月 大雪, 冬至 12月 小寒, 大寒

답하기를 춘생(春生), 하장(夏長), 추수(秋收), 동장(冬藏) 하는 것이 氣의 일상(一常)이다. 사람의 氣가 또한 이것에 상응(相應)한다. 일일(一日)을 나누면 사시(四時)가 되는데, 朝則 爲春, 日中 爲夏, 日入 爲秋, 夜半 爲冬이 된다⁷⁾라고 하여 일년(一年) 사시(四時)와 일일(一日) 사시(四時)가 상응(相應)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침은 봄, 한낮은 여름, 저녁은 가을, 밤중은 겨울이 된다(Table 2).

Table 2. 日出, 日入에 의한 一日 四時 區分

一일의 四時	寅卯辰(春) 3시-9시	巳午未(夏) 9시-15시	申酉戌(秋) 15시-21시	亥子丑(冬) 21시-3시
一일의 二分, 二至	卯 日出	午 日中	酉 日入	子 夜半

2. 일년(一年)과 일일(一日)의 음양사상(陰陽四象)

1) 일년사시(一年四時)의 음양사상(陰陽四象)

《黃帝內經》의 <素問·厥論>에서는 “春夏則陽氣多而陰氣少 秋冬則陰氣盛而陽氣衰⁷⁾”라고 하여, 춘하(春夏)에는 양기(陽氣)는 많아지면서 음기(陰氣)는 적어지고, 추동(秋冬)에는 음기(陰氣)는 많아지면서 양기(陽氣)는 적어진다고 했다. 이것은 음양(陰陽)의 생성(生成) 발달단계로 일년(一年) 동안의 정상적인 음양(陰陽)의 영축진퇴(盈縮進退)의 주기적인(週期的) 순환이다. 또한 음양(陰陽)의 분기(分氣)가 되는 시간을 네 가지 지점(支點)으로 분류했는데, 《類經》의 운기류(運氣類) <三陰三陽幽明分之>²⁾ 條文에서는

“황제 가로대 氣가 이르는 것을 至라고 하고, 氣가 나누어지는 것을 分이라고 한다. 至는 氣가 같고, 分은 氣가 다르다. 이것이 天地의 바른 법도이다”라고 했다.

음양(陰陽)의 생장수장(生長收藏)에 관해서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 중에 天地運氣門의 <陰陽之氣升降盈虛>³⁾ 조문(條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의 거리는 8만 4천리이며, 동지(冬至)날에 땅속에서 一陽의 氣가 올라가기 시작하여 90日후인 冬至에서 春分까지는 4만 2천리로 이때가 춘분날(春分)이 된다. 天地의 中間이니 이때에는 陰中の 陽이 半이 있으므로 괘(卦)로는 지천태(地天泰)가 되고 기후는 寒에서 溫으로 바뀌는 시기로 만물이 生한다.

춘분(春分)날로부터 陽氣는 다시 올라가는데 90日 후인 180日이 되면 하지(夏至)날이 되어서 땅에서 하늘까지 도달한 거리는 8만 4천리이다. 이때가 陽中에 陽이 있어서 순양(純陽)이 되고 卦로는 중천건(重天乾)이 되며, 그 기후는 온(溫)에서 열(熱)로 바뀌는 시기로 만물이 무성(茂盛)하다.

무릇 熱이 極하면 陰이 生하므로 하지(夏至)날에 一陰이 生하는데, 하지(夏至)날에 생긴 陰氣는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90日이 지나면 추분(秋分)날이 된다. 天地의 中間(中間)이며 이 시기는 陽中에서 陰이 半이 되어 卦로는 천지부괘(天地否卦)가 되고, 그 기후는 열(熱)에서 양(涼)으로 바뀌어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의 시기이다. 이후에 陰氣는 秋分부터 다시 내려가서 90日後는 180日이 되어 冬至가 되는데 180日 동안 陰氣는 8만 4천리를 내려와서 땅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시기는 陰中에 陰이 있는 시기로 순음(純陰)이 되어 卦(卦)로는 중지곤괘(重地坤卦)가 되며 그 기후는 涼에서 寒으로 바뀌는 겨울이 되어 만물이 수장(收藏)하는 시기이므로 虛라고 한다”고 했다.

이상(以上)에서 볼 때 사계절을 음양사상(陰陽四

象)으로 분류하면 음양(陰陽)은 그 근본(根本)이 동춘(冬春)은 陰, 하추(夏秋)는 陽에 해당된다. 사상(四象)으로 분류하면 冬은 음중지음(陰中之陰), 春은 음중지양(陰中之陽), 夏는 양중지양(陽中之陽), 秋는 양중지음(陽中之陰)이 된다(Table 3).

2) 일일사시(一日四時)의 음양사상(陰陽四象)

일일(一日)에 대한 음양(陰陽)의 생장수장(生長收藏)을 《黃帝內經》의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⁷⁾에서는 “봄에는 生하니 양기(陽氣)가 升하고, 여름에는 長하니 양기(陽氣)가 盛하다. 가을에는 收하니, 陽氣가 降하고, 겨울에는 藏하니 陽氣가 伏한다. 이것이 氣의 일상적 變化이니 陽氣를 말한 것이다. 一日을 나누면 四時가 되는데 아침은 春이 되고, 일중(日中)은 夏가 되며, 일입(日入)은 秋가 되고, 야반(夜半)은 冬이 된다.”고 했다. 《黃帝內經》의 <素問金匱眞言論篇>⁷⁾에 “故曰 陰中有陰, 陽中有陽

平旦至日中, 天之陽, 陽中之陽也 (火)

日中至黃昏, 天之陽, 陽中之陰也 (金)

合夜至雞鳴, 天之陰, 陰中之陰也 (水)

雞鳴至平旦, 天之陰, 陰中之陽也 (木)

故人亦應之”라고 하여 하루를 火金水木의 四象으로 분류 했으며 오행에서 土가 빠지면 四象이 된다. 黃昏에서 合夜까지는 土의 시간으로서 四象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四象에서 빠진 시간으로 하루를 오행으로 나누면 土가 들어 가야 한다. 土는 四象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며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로서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이며 새로운 힘을 가족에게 실어주는 자리가 土의 시간자리에 해당한다. 사상과 오행의 차이는 四象에서 土가 들어가면 五行이고 五行에서 土가 빠지면 四象이 된다(Table 4).

Table 4. 일일사시(一日四時)의 음양(陰陽)과 사상(四象)

一日四時 (一日四象)	亥·子·丑 21시-3시	寅·卯·辰 3시-9시	巳·午·未 9시-15시	申·酉·戌 15시-21시
一日的 二分 二至	子 夜半(冬)	卯 日出(春)	午 日中(夏)	酉 日入(秋)
陰陽과 四象	陰中之陰== 陰--	陰中之陽==	陽中之陽== 陽-	陽中之陰==

Table 3. 일년사시(一年四時)의 음양(陰陽)과 사상(四象)

四時	冬	春	夏	秋
二分 二至	冬至日	春分日	夏至日	秋分日
陰陽의 生長收藏과 卦	一陽上升 純陰 == ==	陰中陽半 == ==	一陰下降 純陽 == ==	陽中陰半 == ==
	重地坤卦	地天泰卦	重天乾卦	天地否卦
陰陽과 四象	陰中之陰== (藏)	陰中之陽== (生)	陽中之陽== (長)	陽中之陰== (收)
	陰--		陽-	

3. 運氣를 통한 사시음양(四時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

운기학을 간략하게 말하면 오운(五運)과 육기(六

氣)의 변화에 따라서 인체(人體)에 일어나는 생리와 병리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또한 자연의 모든 만물 변화를 오운과 육기로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기(運氣)란 오운(五運)과 육기(六氣)가 합해진 용어로 오운(五運)과 육기(六氣-司天,在泉)가 복합적으로 매년마다 작용하는 것이다.

오운(五運)이란 우주(宇宙)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오행(五行)의 힘이 만물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말하며, 육기(六氣)란 지상(地上)에서 작용하는 오행(五行)의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오운이나 육기가 근원적으로 동일한 五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운기학의 기원(起源)은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내경의 <소문(素問)> 81편(篇) 중에서 운기에 관한 것이 한의학의 기초이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의학은 운기학의 체계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1) 간지(干支)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구분¹⁰⁾

① 천간(天干)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① 천간(天干)의 음양(陰陽)을 정기신계(乙丁己辛癸)는 음간(陰干)이 되고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은 양간(陽干)이 된다.

② 천간(天干)의 정오행(正五行)과 화오행(化五行) 천간(天干)의 정오행(正五行)은 천간형제차서(天干兄弟次序)로

- 갑을(甲乙)=목(木)
- 병정(丙丁)=화(火)
- 무기(戊己)=토(土)
- 경신(庚辛)=금(金)
- 임계(壬癸)=수(水)가 된다.

천간(天干)의 화오행(化五行)은 부부 배합(夫婦 配合)으로 오운(五運)이 되며

- 갑기(甲己)=토운(土運)
- 을경(乙庚)=금운(金運)
- 병신(丙辛)=수운(水運)
- 정임(丁壬)=목운(木運)

무계(戊癸)=화운(火運)이 된다.

이 천간(天干)은 위에서 양(陽)이 되어 오운(五運)을 주관한다(此天干在上爲陽 所以主乎運也).

③ 天干에 따른 오행(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 천간(天干)이 壬癸甲乙丙은 木土水이 太過運이 되며 火金은 不及이 되고, 丁戊己庚辛은 火金이 太過運이 되며 木土水運이 不及

運이 된다.

② 지지(地支)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① 지지(地支)화오행(化五行)의 음양(陰陽)

지지대충정위(地支對衝定位) 즉 화오행(化五行)의 음양(陰陽)은 축미(丑未)=(土), 진술(辰戌)=(水), 사해(巳亥)=목(木) 등은 음(陰)이 되며, 자오(子午)=군화(君火)와 인신(寅申)=상화(相火)의 화(火), 묘유(卯酉)=금(金) 등은 양(陽)이 된다.

② 지지(地支)의 정오행(正五行)과 화오행(化五行)

○ 정오행(正五行)은 지지순환차서(地支循環次序)로 인묘(寅卯)=목(木), 사오(巳午)=화(火), 진술축미(辰戌丑未)=토(土), 신유(申酉)=금(金), 해자(亥子)=수(水)가 된다.

○ 지지(地支)의 화오행(化五行)은 지지대충정위(地支對衝定位)로 이것은 십이지지(十二地支)가 각각(各各) 축미(丑未)=(土), 진술(辰戌)=(水), 사해(巳亥)=목(木), 사오(巳午)=화(火), 묘유(卯酉)=금(金) 등으로 대대(對待)의 원리로 만나 짝이 되어 화오행(化五行)이 된다. 이 지지(地支)는 아래에서 음(陰)이 되어 육기(六氣)를 주관한다(此地支在下爲陰 所以主乎氣也).

자오소음군화사천(子午少陰君火司天) ↔ 묘유양명조금재천(卯酉陽明燥金在泉)

축미태음습토사천(丑未太陰濕土司天) ↔ 진술태양한수재천(辰戌太陽寒水在泉)

인신소양상화사천(寅申少陽相火司天) ↔ 사해궤음풍목재천(巳亥厥陰風木在泉)

묘유양명조금사천(卯酉陽明燥金司天) ↔ 자오소음군화재천(子午少陰君火在泉)

진술태양한수사천(辰戌太陽寒水司天) ↔ 축미태음습토재천(丑未太陰濕土在泉)

사해궤음풍목사천(巳亥厥陰風木司天) ↔ 인신소양상화재천(寅申少陽相火在泉)이 된다.

2) 간지(干支)를 통한 오운(五運)과 육기(六氣)의 개념⁹⁾

간지법(干支法)은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로 구성된 육십갑자법(六十甲子法)으로 고대(古代)에 동양에서 연대(年代)만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가 아니라 오운(五運)과 육기(六氣)를 표시하기 위한 부호(符號)인 것이다. 천간(天干)은 오운(五運), 지지(地支)는 육기(六氣)를 나타내는 것이다.

(1) 오운(五運)과 육기(六氣)의 개념

오운(五運)에는 주운(主運), 중운(中運)⁸⁾, 객운(客運)이 있으며 육기(六氣)는 주기(主氣), 객기(客氣)가 있다. 주운(主運), 주기(主氣)는 항상 변화하지 않으며, 중운(中運), 객운(客運), 객기(客氣)는 매년마다 변화 한다.

육기(六氣)는 오운(五運)에 종속되어 작용하므로 사천(司天)과 재천(在泉)의 태과(太過), 불급(不及)은 오운(五運)의 같은 오행(五行), 오운(五運)의 태과(太過), 불급(不及)을 전적(全的)으로 따른다⁷⁾.

① 오운(五運)

한해의 오운(五運)은 주운(主運), 객운(客運), 중운(中運)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삼운(三運) 중에서 중운(中運)의 영향력이 가장 크므로 중운(中運)을 위주로 운기를 해석한다. 그 해 오운(五運)의 작용은 목운(木運), 화운(火運), 토운(土運), 금운(金運), 수운(水運)등이 각각 73일씩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운(五運)이 대한(大寒)에서 대한(大寒)까지 1년 동안 五重衣로 동시적으로 작용하므로 중운(中運)에 따라 각각의 오운(五運)의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이 있을 뿐이다. 一甲子年間的 60년 동안에 木火土金水 각각의 오운(五運)은 오년(五年)을 주기로 태과불급(太過不及)이 바뀌게 된다¹³⁾.

○ 오운(五運)의 태과, 불급(太過不及)과 중운(中運) 천간(天干)의 화오행(化五行)은 그해의 중운(中運)이 된다.

- 甲(太過) 己(不及) → 土運
- 乙(太過) 庚(不及) → 金運
- 丙(太過) 辛(不及) → 水運
- 丁(太過) 壬(不及) → 木運
- 戊(太過) 癸(不及) → 火運

② 육기(六氣)

당년(當年)의 육기(六氣)는 주기(主氣), 객기(客氣)가 각각 다르며 주기(主氣)는 오행의 상생(相生)의 순서로 작용한다. 즉 궐음목(厥陰木), 소음군화(少陰君火), 소양상화(少陽相火), 태음토(太陰土), 양명금(陽明金), 태양수(太陽水)로 해마다 변화하지 않는다. 객기(客氣)는 삼음삼양(三陰三陽)의 대소(大少)의 순서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축미(丑未)년의 경우에 궐음(厥陰)→소음(少陰)→태음(太陰)→소양(少陽)→양명(陽明)→태양(太陽)의 순서로 작용하며 당년(當年)의 지지(地支)에 따라 매년(每年) 그 순서가 바뀐다. 당년(當年)의 객기(客氣)는 1-3기를 전반년(前半)으로 하며 3기는 사천(司天)이 되어 전반년(前半)을 주관하며, 4-6기를 후반년(後半)으로 하며 6기는 재천(在泉)이 되어 후반년(後半)을 주관한다. 1-2기, 4-5기는 좌우간(左右)의 간기(間氣)라고 하며 운기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객기(客氣)의 전반년(前半)과 후반년(後半)

- | | |
|-----------------------------|---------|
| 전반년(前半) | 후반년(後半) |
| 子午 少陰 君火(司天) ↔ 卯酉 陽明 燥金(在泉) | |
| 丑未 太陰 濕土(司天) ↔ 辰戌 太陽 寒水(在泉) | |
| 寅申 少陽 相火(司天) ↔ 巳亥 厥陰 風木(在泉) | |
| 卯酉 陽明 燥金(司天) ↔ 子午 少陰 君火(在泉) | |
| 辰戌 太陽 寒水(司天) ↔ 丑未 太陰 濕土(在泉) | |
| 巳亥 厥陰 風木(司天) ↔ 寅申 少陽 相火(在泉) | |

(2) 매년의 오운(五運)과 육기(六氣)의 교체일(交替日, 陽曆)

① 오운분일(五運分日)(《동의보감》, 《의종금감》)
오운(五運)은 대한일(大寒日)~대한일(大寒日).....(01/21~01/21)

② 육기분일(六氣分日)
육기(六氣) : 사천(司天) ; 대한(大寒)~대서(大暑) ; 1기(氣), 2기(氣), 3기(氣)(01/21~7/23)
재천(在泉) ; 대서(大暑)~대한(大寒)(7/23~01/21) ; 4기(氣), 5기(氣), 6기(氣)(7/23~01/21)

3) 간지(干支)의 배합(配合)에 따른 운기(運氣)의 해석법

《황제내경》의 <육원정기대론(六元正氣大論)>⁷⁾에 근거하면 매년의 운기(運氣) 즉 오운(五運)과 사천(司天), 재천(在泉) 지기(之氣)의 모두는 오행(五行)과 그 오행의 생수(生數) 혹은 성수(成數)로 함께 표시하였다. 그 오행(五行)이 불급(不及)일 때에는 생수(生數), 그 오행(五行)이 태과(太過)일 경우는 성수(成數)로 표시하였다. 오행(五行) 중에서 오직 토(土)는 태과(太過)와 불급(不及) 모두 생수(生數)인 5로 표시하였다.

운기해석은 당년(當年)의 천간(天干)으로 중운(中運)이 정하며, 정해진 중운(中運)의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에 따라 오운(五運)의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이 각각 정해진다. 육기(六氣)는 당년(當年)의 전반기(前半期) 사천(司天), 후반기(後半期) 재천(在泉)으로 나누고, 사천(司天)과 재천(在泉)의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은 그해 당년(當年)의 중운(中運)에 의

해서 정해진 오운(五運)의 같은 오행(五行)의 태과(太過), 불급(不及)을 전적(全的)으로 따른다¹³⁾. 간지(干支)에 의한 육십갑자법(六十甲子法)은 60년을 같은 주기로 순환하고 반복한다.

○ 운기해석의 예

운기해석은 다음과 같으며 一甲子年의 이하(以下), 이상(以上)의 餘年도 똑 같은 원리로 해석하면 된다.

예로 들면 갑자년(甲子年) 전체의 음양은 음태과(陰太過), 양불급(陽不及)이 되고 오행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은 태과(太過)가 土(太過)5, 水(太過)6, 木(太過)8이 되고 불급(不及)이 金(不及)4=2개, 火(不及)2=2개 가 된다.

예) 갑자년(甲子年)

㉠ 갑자년(甲子年)의 전체

上(司天) 少陰火(不及)2

中運(運) 土(太過)5

下(在泉) 陽明金(不及)4

격운 : 土(太過)5, 金(不及)4, 水(太過)6, 木(太過)8, 火(不及)2

○ 갑자년의 전체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

음양(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음태과(陰太過), 양불급(陽不及)

오행(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태과(太過)=土(太過)5, 水(太過)6, 木(太過)8

불급(不及)=金(不及)4, 火(不及)2

㉡ 갑자년(甲子年)의 전반년(前半年)

○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

上(司天) 少陰火(不及)2

中運 土(太過), 金(不及), 水(太過), 木(太過), 火(不及)

음양(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음태과(陰太過), 양불급(陽不及)

오행(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태과(太過)=土(太過)5, 水(太過)6, 木(太過)8

불급(不及)=金(不及)4, 火(不及)2=2개

㉢ 갑자년(甲子年)의 후반년(後半年)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

中運 土(太過), 金(不及), 水(太過), 木(太過), 火(不及)

下(在泉) 陽明金(不及)

음양(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음태과(陰太過), 양불급(陽不及)

오행(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태과(太過)=土(太過)5, 水(太過)6, 木(太過)8

불급(不及)=金(不及)4=2개, 火(不及)2

4) 운기(運氣)를 통한 사시(四時)의 음양오행(陰陽五行) 고찰

자연의 진리는 절대의 진리와 변화의 진리로 구분된다. 운기를 통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황제내경》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으나 필자는 운기를 통한 음양오행의 해석을 절대의 기준에서 본 것이다. 현재까지 한의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양오행(陰陽五行)을 해석을 木火를 陽, 土를 中, 金水를 陰으로 해석하고 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절대의 기준에서 해석 할 때 木土水를 陰, 土를 中, 金火는 陽이 된다. 運氣의 해석의 기본단위 단위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이며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곧 운기(運氣)인 것이다.

천간(天干)이 임계갑을병(壬癸甲乙丙)인 해는 陰이 태과(太過), 陽이 불급(不及)이 되어 木水土=太過, 火金=不及이 되고, 정무기경신(丁戊己庚辛)인 해는 陰이 태과(太過), 陽이 불급(不及)이 되어 木水土=不及, 火金=太過於 된다¹³⁾. 따라서 매년의 음양오행태과불급(陰陽五行太過不及)은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로 판단할 수 있다.

한 해를 전반년(前半年)과 후반년(後半年)으로 나누어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을 살펴보자. 해당 연(年)의 천간(天干)으로 오운(五運)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이 정해지고, 해당 연(年)의 지지(地支)로 전반년(前半年)은 육기(六氣)의 사천지기(司天之氣), 후반년(後半年)은 재천지기(在泉之氣)가 정해진다. 육기(六氣)에서는 사천지기(司天之氣), 재천지기(在泉之氣)가 주로 운기형성에 작용하며, 육기(六氣)는 오운(五運)에 종속되어 작용하므로 사천(司天)과 재천(在泉)의 태과(太過), 불급(不及)은 오운(五運)의 같은 오행(五行), 오운(五運)의 태과(太過), 불급(不及)을 전적(全的)으로 따른다⁷⁾.

따라서 해당 연(年)의 오운(五運)과 육기(六氣)에 따른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은 그해의 간지(干支)에 의한 운기(運氣)로 판단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戊子年의 경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을 분석해보면, 1년 전체에 있어서는 양태과(陽太過), 음불급(陰不及)으로 화금태과(火金太過), 목수토불급(木水土不及)이 된다.

1년을 2분기로 나눌 때 전반년(前半年)은 양태과(陽太過), 음불급(陰不及)으로 화금태과(火太過=2개 金太過=1개), 목수토불급(木=水=土=不及)이 되고, 후반년(後半年)은 양태과(陽太過), 음불급(陰不及)으로 금화태과(金太過=2개 火太過=1개), 목수토불급(木=水=土=不及)이 된다(Table 5).

Table 5 運氣에 의한 四時의 陰陽五行과 太過不及

天干	陰陽太過不及	五行太過不及
壬癸甲乙丙년	陰太過 . 陽太過	木水+=太過 . 火金=不及
丁戊己庚辛년	陽太過 . 陰不及	木水+=不及 . 火金=太過

5) 운기(運氣)를 통한 사시(四時)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

천간(天干)의 당년운(當年運)에 따라서 오운(五運)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이 정해지고, 오운의 태과불급(太過不及)에 의해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사상(四象)이 정해진다. 一甲子年間의 오운(五運)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을 고찰해보면 60년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천간(天干)이 임계갑을병(壬癸甲乙丙)인 해는 陰이 태과(太過), 陽이 불급(不及)이 되어 木水土=太過, 火金=不及이 되고, 정무기경신(丁戊己庚辛)인 해는 陽이 태과(太過), 陰이 불급(不及)이 되어 木水土=不及, 火金=太過가 된다. 육기(六氣)는 오운(五運)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을 전적으로 따르므로 육기(六氣)가 오운(五運)에 가임(加臨)할 때는 전반년(前半年)은 사천(司天)이 임(臨)하게 되고, 후반년(後半年)은 재천(在泉)이 가(加)하게 되어 같은 오운(五運)의 오행(五行)에 합해져서 오행(五行)이 된다(Table 6).

Table 6 운기(運氣)에 의한 사시(四時)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

天干	壬癸甲乙丙년	丁戊己庚辛년	
陰陽	陰 -- (陰太過)	陽 - (陽太過)	
五行	木, 水, 土	金, 火	
四象	水 陰== 木 少陰==	土 中☉ 至陰, 至陽	金 少陽== 火 太陽==

4. 인체오장(人體五藏)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

《黃帝內經》의 <素問金匱眞言論篇>⁷⁾에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身之藏府中陰陽, 則藏者爲陰, 府者爲陽, 肝心脾肺腎五藏, 皆爲陰,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六府, 皆爲陽”이라고 하여 사람의 陰陽은 外는 陽이 되고, 內는 陰이 되며, 人身의 陰陽은 背는 陽이 되고, 腹은 陰이 된다. 人身의 藏府中에도 陰陽이 있으니, 藏은 陰이 되고, 府는 陽이 된다. 肝心脾肺腎의 五藏은

모두 陰이 되고,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의 六府는 모두 陽이 된다. 위에서 순서적으로 사람의 陰陽(男女), 그 다음 사람 몸의 陰陽, 사람 몸의 藏府의 陰陽을 말한 것이다.

《黃帝內經》의 <素問金匱眞言論篇>⁷⁾에

“故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火)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金)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水)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木)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土). 此皆陰陽表裏, 內外雌雄, 相輸應也, 故以應天之陰陽也”라고 하여 背는 陽이 되어 陽中之陽은 心이 되고, 背은 陽이 되어 陽中之陰은 肺가 된다. 腹은 陰이 되어 陰中之陰은 腎이 되고, 腹은 陰이 되어 陰中之陽은 肝이다. 腹은 陰이 되어 陰中之至陰은 脾이다. 여기서 至陰은 中을 말하는 것으로 土를 말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中央 土의 역할을 한다. 五藏을 사상과 음양오행으로 나눈 것으로 사람 몸의 오장이 자연의 음양에 응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Table 7).

Table 7. 인체오장(人體五藏)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

五藏	腎	肝	脾	心	肺
五行	水	木	土	火	金
四象	陰中之陰 太陰==	陰中之陽 少陰==	陰中之至陰	陽中之陽 太陽==	陽中之陰 少陽==
陰陽	陰 --		中 ☉ (至陰, 至陽)	陽 -	

5. 약물기미(藥物氣味)의 음양사상(陰陽四象)

李東垣의 <用藥法象>¹¹⁾에서는 약물의 기미음양(氣味陰陽)을 음양사상(陰陽四象)으로 분류하였다.

“味가 厚한 것은 음중지음(陰中之陰)으로 미후(味厚)하면 설(泄)하게 되며 기미(氣味)로는 산고함(酸苦鹹), 한(寒)하다. 味가 薄한 것은 음중지양(陰中之陽)으로 미박(味薄)하면 통(通)하게 되며 기미(氣味)로는 산고함(酸苦鹹), 평(平)하다. 氣가 厚한 것은 양중지양(陽中之陽)으로 기후(氣厚)하면 발열(發熱)하게 되며 기미(氣味)로는 신감(辛甘), 온열(溫熱)하다. 氣가 薄한 것은 양중지음(陽中之陰)으로 기박(氣薄)하면 발설(發泄)하게 되며 기미(氣味)로는 신감담(辛甘淡), 평량한(平涼寒)하다”고 하여 약물의 기미음양(氣味陰陽)을 음양사상(陰陽四象)으로 분류하였다 (Table 8).

Table 8. 기미(氣味)의 음양사상(陰陽四象)

氣味	기(氣)-양(陽)		미(味)-음(陰)	
氣味の 陰陽四象	기후(氣厚) 양중지양 (陽中之陽)	기박(氣薄) 양중지음 (陽中之陰)	미후(味厚) 음중지음 (陰中之陰)	미박(味薄) 음중지양 (陰中之陽)
藥性	신감(辛甘) 온열(溫熱)	신감담(辛甘淡) 평량한(平涼寒)	산고함(酸苦鹹) 한(寒)	산고함(酸苦鹹) 평(平)

6. 사시용약(四時用藥)

1년과 일일(一日)을 사시(四時)로 구분하고 또한 사시(四時)를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으로 구분하여 용약(用藥)을 하는 통체적(統體的)인 원칙은 치법(治法)과 용약(用藥)의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또한 치법도 순치법(順治法), 역치법(逆治法)으로 분류하고, 용약(用藥)도 동춘(冬春)은 음(陰), 하추(夏秋)는 양(陽)으로 분류하여 치법용약(治法用藥)을 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순치법(順治法)으로 용약(用藥)을 할 경우, 하추(夏秋)의 시기(時氣)에는 보양(補陽), 보기(補氣)하는 약을 위주로 용약(用藥)하고, 동춘(冬春)의 시기에는 보음(補陰), 보혈(補血)하는 약을 위주로 용약(用藥)해야 한다. 반대로 역치법(逆治法)으로 용약(用藥)을 할 경우, 하추(夏秋)의 시기(時氣)에는 보음(補陰), 보혈(補血)하는 약을 위주로 용약(用藥)해야 하고, 동춘(冬春)의 시기에는 보양(補陽), 보기(補氣)하는 약을 위주로 용약(用藥)해야 한다.

운기(運氣)에 의한 사시용약(四時用藥)은 매년(每年)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태과(太過), 부족(不足)을 판단하여 용약하면 된다. 음양(陰陽)으로 분류하여 용약(用藥)을 할 경우, 양태과(陽太過), 음불급(陰不及), 음태과(陰太過), 양불급(陽不及)으로 분류하고, 오행(五行)으로 분류하여 용약(用藥)을 할 경우는 목수토(木水土)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화금(火金)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을 판단하여 순치법(順治法)과 역치법(逆治法)을 임기응변(臨機應變)해서 용약(用藥)해야 한다.

1) 사시용약(四時用藥)의 치법(治法)과 용약(用藥)

사시(四時) 용약의 대표적인 치법은 순치법(順治法)과 역치법(逆治法)이 있다.

순치법(順治法)은 사시음양(四時陰陽)의 시기(時氣)의 승강부침(升降浮沈)에 순응(順應)하여 용약(用藥)하는 것으로 약물기미(藥物氣味)의 음양(陰陽) 승강부침(升降浮沈)에 작용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

는 것이다.

순치법(順治法)의 방법을 이시진(李時珍)은 《本草綱目》¹²⁾의 <升·降·浮·沈> 條文中에서 “東垣은 藥에는 升·降·浮·沈의 작용으로 生·長·收·藏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四時에 배합(配合)된다”고 했으며 또한 계절에서 “春升夏浮하고 추수동장(秋收冬藏)하는데 토는 중간에居하여 化生作用을 하며 미박(味薄)한 약물은 升而生하게 하고 기박(氣薄)한 약물은 降而收하게 한다”고 했다.

역치법(逆治法)은 사시(四時)의 시기(時氣)의 승강부침(升降浮沈)에 역행하여 용약(用藥)하는 것으로 약물기미(藥物氣味)의 음양(陰陽)에 따른 승강부침(升降浮沈)에 작용에 역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천(李筵)은 《醫學入門》의 本草篇中 <本草總括>⁹⁾에서 四時를 따라서 用藥함은 春溫이 지나치게 심하면 涼하게 하는 藥이 마땅하고, 夏熱이 지나치게 심하면 寒하게 하는 藥이 마땅하고 秋涼이 지나치게 심하면 溫하게 하는 藥이 마땅하고 冬寒이 지나치게 심하면 熱하게 하는 藥이 마땅하다. 또한 病과 四時가 逆하면 夏에도 熱藥을 써야하고 冬에도 寒藥을 써야한다.”고 했다. 이것은 역치법(逆治法)의 방법을 말한 것이다.

2) 사시용약(四時用藥)의 처방(處方)과 가감(加減)

① 일년(一年)의 사시용약(四時用藥)

《동의보감》 전편(全篇)³⁾에서 일년(一年), 일일(一日)에 대한 사시음양(四時陰陽)의 시기(時氣)에 따라 가감법(加減法)이 각각 다르게 활용된 처방들 중 임상에서 많이 응용하는 처방으로 補中益氣湯·六味地黃湯·四物湯·芍藥甘草湯 등이 있다.

같은 증상이라도 사계절에 따라 용약의 가감법(加減法)이 각각 다른 것을 살펴보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은 봄·가을에는 순치법(順治法)과 여름·겨울에는 역치법(逆治法)으로 활용되었는데 “보중익기탕의 가감법(加減法)으로 만약 내상(內傷)에 외감(外感)을 낀 症이면 보중익기탕에 봄에는 川芎·防風·柴胡·荊芥·紫蘇·薄荷를 加하고, 여름에는 乾葛·石膏·麥門冬·薄荷·倍 升柴를 加하고, 가을에는 羌活·防風·荊芥를 加하고, 겨울에는 麻黃·桂枝·乾薑의 類를 加해 쓰는 法이 좋다.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은 봄·가을에는 순치법(順治法)과 여름·겨울에는 역치법(逆治法)으로 활용되었는데, 四肢痿弱無力症에 여름에는 六味地黃元을, 봄·가을에는 腎氣丸을, 그리고 겨울에는 八味丸을 사용하였다.

사물탕(四物湯)은 혈병(血病)의 통치방(通治方)으로

로 봄·가을에는 순치법(順治法)과 여름·겨울에는 역치법(逆治法)으로 활용되었는데, 봄에는 川芎을, 여름에는 芍藥을, 가을에는 地黃을, 겨울에는 當歸를 각각 倍用한다. 또 봄에는 防風을, 여름에는 黃芩을, 가을에는 天門冬을, 겨울에는 桂枝를 각각 加한다.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은 血滯으로 인한 四時의 腹痛을 다스리는데 역치법(逆治法)으로 활용되었다.

血虛로 인한 같은 腹痛이라도 脈이 弦하고(봄) 氣가 傷한 症은 黃芩을 加하고, 脈이 洪하고(여름) 金을 傷한 症은 芍藥을 倍하고, 脈이 緩하고(長夏) 水를 傷한 症은 桂枝를 加하며, 脈이 濡하며(가을) 血을 傷한 症은 當歸를 加하고, 脈이 遲하고(겨울) 火를 傷한 症은 乾薑을 加하고, 臍下가 痛한 症은 熟地黃을 加한다.

② 일일(一日)의 사시용약(四時用藥)

같은 咳嗽의 症狀이라도 일일(一日) 사시음양(四時陰陽)의 시기(時氣)에 따라 가감(加減)의 용약(用藥)을 달리 하는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寶鑑》³⁾雜病篇 中 咳嗽門의 <嗽作有四時早晏之異> 條文에 “이른 새벽에 기침이 많은 것은 胃中에 食積이 있는 것이니 이 때에 火氣가 肺속에 流入하기가 쉬우니 瀉白散에 知母를 加한 것이나 혹은 二母散을 쓰고(밤중의 기침도 같이 다스림), 上半日(午前)의 嗽는 대체로 胃中에 火가 있는데 속하니 貝母와 石膏를 써서 胃의 火를 내려야 한다. 一方에는 上半日의 嗽가 많은 것은 胃中에 實火가 있는 것인데 單石膏丸에 知母·貝母를 加해 쓰고, 만약 便이 달히고 喘息하고 渴하며 痰이 稠하면 涼膈散을 쓴다”고 했다. 이것은 하루 중에서 양성(陽盛)해가는 시기(時氣)에 대하여 역치법(逆治法)을 사용한 것이다.

“午後에 嗽가 많은 것은 陰虛에 속하니 四物湯에 知母炒·黃柏을 加하여서 먼저 그 火를 내리게 한다. 一方에는 下半日(午後) 嗽는 陰虛에 속하니 四物湯에 二陳湯을 合하고 知母·黃柏·麥門冬을 加하여 쓰고, 寒熱과 盜汗과 遺精에는 滋陰降火湯을 쓴다.

黃昏의 嗽는 火氣가 肺에 떠오른 것인데 涼藥을 쓰지 말고 五味子·五倍子로써 收斂하고 내려야 한다. 一方에는 黃昏의 嗽가 많은 것은 潤肺丸으로 收斂하고 通用으로 二陳湯에 半夏를 빼고 貝母·瓜蘆·靑黛·梔子·黃芩·桑白皮를 加해 쓴다고 했다. 이것은 하루 중에서 음성(陰盛)해가는 시기(時氣)에 대하여 순치법(順治法)을 사용한 것이다.

③ 운기(運氣)에 의한 사시용약(四時用藥)3)

천간(天干)이 임계갑을병(壬癸甲乙丙)년의 음양오

행(陰陽五行) 태과불급(太過不及)을 보면 음양(陰陽)에서는 陽이 불급(不及), 음(陰)이 태과(太過)가 되어 오행(五行)에서는 木水土=太過, 火金=不及이 된다.

정무기경신(丁戊己庚辛)년은 음양(陰陽)에서 양(陽)이 태과(太過), 陰이 불급(不及) 되어 오행(五行)에서 木水土=不及, 火金=太過가 된다. 그러므로 그 해가 양태과(陽太過)년은 음양(陰陽)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불급(不及)한 음(陰)을 보음(補陰), 보혈(補血)하는 약을 위주로 용약(用藥)해야 하고, 오행(五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불급(不及)한 木水土(肝腎脾)를 補하는 위주로 약을 용약(用藥)해야 한다. 그 해가 음태과(陰太過)년은 음양(陰陽)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불급(不及)한 양(陽)을 보양(補陽), 보기(補氣)하는 약을 위주로 용약(用藥)해야 하고 오행(五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불급(不及)한 火金(心肺)를 補하는 위주로 약을 용약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급(不及)을 보(補)하는 것으로 역치법(逆治法)이 되며, 순치법(順治法)은 반대로 태과(太過)를 보(補)하면 된다.

《동의보감》에서 사용된 처방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의 운기처방(運氣處方)에 있는 사시용약(四時用藥)의 운용법(運用法)은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볼 때에서 불급(不及)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운(氣運)을 보(補)하고 태과(太過)한 음양오행(陰陽五行) 기운(氣運)을 사(瀉)하는 방법으로 처방되었다.

가. 임계갑을병(壬癸甲乙丙)년의 처방

운기적인 관점에서 사시(四時)를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판단 할 때, 임계갑(壬癸甲)년은 음태과(陰太過), 양불급(陽不及)년으로 芎朮湯, 黃芪茯神湯, 附子山茱萸湯등은 역치법(逆治法), 을병(乙丙)년의 紫菀湯, 黃連茯苓湯등은 순치법(順治法)으로 처방되었다.

㉠ 임년(壬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木太過하므로 風氣流行하여 脾土受邪하므로 民病은 瀉泄 食減 體重 煩冤 腸鳴 脇痛支滿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芎朮湯을 쓴다.

㉡ 계년(癸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火不及하여 寒乃盛行하므로 民病은 胸痛 脇滿 膺背肩胛兩臂內痛 鬱冒心痛 暴痞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黃芪茯神湯을 쓴다.

㉢ 갑년(甲年)의 기운(紀運) 그 해가 土太過하여 雨濕流行하므로 腎水受邪하니 民病은 腹痛 淸厥意不樂 肌肉痿 足痿 脚下痛 中滿食減 四肢不舉 등의 症狀이 發生하니 附子山茱萸湯을 쓴다.

㉣ 을년(乙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金不及하여 炎火盛行하므로 民病은 肩背脊重 飢噎 咳喘 血便注

下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紫菀湯을 쓴다.

㉑ 병년(丙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水太過하므로 寒氣流行하여 心火受邪하므로 民病은 身熱, 心躁하며, 陰厥하여 上下가 寒邪에 맞아서 譫妄, 心痛, 喘咳, 寢汗 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黃連茯苓湯을 쓴다.

나. 정무기경신(丁戊己庚辛)년의 처방

운기적인 관점에서 사시(四時)를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판단 할 때 때 양태과(陽太過), 음불급(陰不及)년으로 무경(戊庚)년에 麥門冬湯, 牛膝木瓜湯 등의 처방은 역치법(逆治法), 정기신(丁己辛)년의 茯苓牛膝湯, 白朮厚朴湯, 五味子湯 등은 순치법(順治法)으로 처방되었다.

㉒ 정년(丁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木不及하여 燥乃盛行하므로 民病은 中清, 肢脇小腹痛, 腸鳴, 溇泄 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茯苓牛膝湯을 쓴다.

㉓ 무년(戊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火太過하므로 火暑流行하여 肺金受邪하므로 民病은 癘疾, 少氣, 咳喘, 血溢, 血泄, 身熱, 骨痛 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麥門冬湯을 쓴다.

㉔ 기년(己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土不及하여 風氣盛行하므로 民病은 殭泄 霍亂 體重 腹痛 筋骨絲併肌肉痠痠 善怒 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白朮厚朴湯을 쓴다.

㉕ 경년(庚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金太過하므로 燥氣流行하여 肝木受邪하므로 民病은 脇與小腹痛 耳聾 目赤 胸脇痛引小腹尻陰하고 股膝脾膈胛足이 모두 疼痛하는 症狀이 발생하니 牛膝木瓜湯을 쓴다.

㉖ 신년(辛年)의 기운(紀運)은 그 해가 水不及하여 濕乃盛行하므로 民病은 腫滿身重 濡泄 足痿 清厥 脚下痛 등의 症狀이 발생하니 五味子湯을 쓴다.

결론

四時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시음양(四時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에 따라 치법(治法)과 용약(用藥)을 고찰(考察)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년(一年)의 사시음양(四時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은 운기(運氣)와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작용으로 생기며, 일일(一日) 사시음양(四時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은 태양의 일몰(日沒)과 일출(日出)의 작용으로 생기는데, 인체의 음양(陰陽)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은 태양의 陽氣에 따라 정(定)해짐을 알 수 있었다.

2. 一年과 일일(一日)의 사시기준(四時基準)은 십이지(十二支)로는 寅·卯·辰(1, 2, 3月. 春), 巳·午·未(4, 5, 6月. 夏), 申·酉·戌(7, 8, 9月. 秋), 亥·子·丑(10, 11, 12月. 冬)에 각각 해당되며 각계절의 끝 18일은 각각 맹중계(孟, 仲, 季)로 중앙토(中央土)의 역할을 한다.

3. 사계절의 사시음양(四時陰陽)을 분류하면 그 근본(根本)이 동춘(冬春)은 陰, 하추(夏秋)는 陽에 해당된다. 사상(四象)으로 분류하면 그 근본(根本)이 冬은 음중지음(陰中之陰), 春은 음중지양(陰中之陽), 夏는 양중지양(陽中之陽), 秋는 양중지음(陽中之陰)에 해당한다. 일일(一日)의 사시음양(四時陰陽)도 동일하다.

4. 운기(運氣)를 통한 사시음양오행(四時陰陽五行)의 태과불급(太過不及)에 대한 천간(天干)이 임계갑을병(壬癸甲乙丙)은 陽이 불급년(不及年)이 되어 木水土=太過, 火金=不及이 되고, 정무기경신(丁戊己庚辛)은 陽이 태과년(太過年)이 되어 木水土=不及, 火金=太過가 된다. 따라서 매년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성쇠(盛衰)는 天干과 地支로 판단할 수 있다.

5. 약물의 기미(藥物氣味)도 음양사상(陰陽四象)으로 분류되며 처방(處方)과 용약(用藥)을 할 때 인체의 외부조건과 내부조건에 따라서 순치법(順治法)과 역치법(逆治法)을 사용하는 것이 사시용약(四時用藥)의 기본원칙이 된다.

6. 《동의보감(東醫寶鑑)》과 기타문헌 등을 조사해 보았을 때 천지(天地), 시간(時間), 운기(運氣), 인체(人體), 약물(藥物)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으로 분류된다.

사시용약(四時用藥)의 기본원칙은 시기(時氣)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의 태과불급(太過不及), 평기(平氣)와 인기(人氣)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 태과불급(太過不及), 평기(平氣)를 잘 판단하여 상호간(相互間)에 맞게 배합(配合)해야 한다.

7. 사시(四時)의 치법(治法)은 크게 사계절의 시기(時氣)에 순응(順應)하는 순치법(順治法)과 역행(逆行)하는 역치법(逆治法)을 임기응변해야 하며, 용약(用藥)은 사계절 중에 사계(四季)의 토기(土氣)가 18일씩 존재하여 사계절을 주관하듯이 오장(五臟)에서도 위기(胃氣)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기(時氣), 인기(人氣), 약물(藥物)이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四象)에 맞게 배합해야 한다.

8. 《동의보감》에서 사시음양(四時陰陽)을 기준으로 용약(用藥)을 한 처방운용(處方運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처방들이 있다.

1) 일년사시(一年四時)에 따라 처방운용(處方運用)

이 다른 경우는 胞門 “血崩血漏用, 升陽調經湯, 益胃升陽湯, 升陽除濕湯, 柴胡調經湯”, 內傷門 “春用 益胃升陽湯, 夏用 升陽順氣湯, 秋用 升陽益胃湯, 冬用 調中益氣湯”, 虛勞門 “春秋用 腎氣丸, 夏用 六味地黃元, 冬用 八味丸”, 霍亂門 “四時通用 藿香正氣散, 寒月虛冷用 理中湯, 暑月用 黃連香薷散合五苓散”, 瘟疫門 “春用 葛根解肌湯, 夏用 調中湯, 秋用 蒼朮白虎湯, 冬用 甘桔湯” 등이 있다.

2) 일일사시(一日四時)에 따라 處方運用과 配合이 다른 경우의 대표적인 例는 咳嗽門 “午前咳嗽用, 瀉白散, 二母散, 午後咳嗽用, 四物湯合二陳湯 知母·黃柏·麥門冬, 黃昏咳嗽用, 潤肺丸, 夜間咳嗽用, 滋陰降火湯, 四物湯 合二陳湯加·枳角·桔梗·知母·黃柏·黃芩” 등이 있다.

3) 일년사시(一年四時)에 따라 藥물의 配合(配合)이 다른 경우는 “却病延壽湯, 四物湯, 芍藥甘草湯, 補中益氣湯” 등이 있다.

4) 기타 季節에 따른 處方運用이 다른 경우는 足門 “長夏痿病用, 健步丸, 四製蒼栝丸, 二炒蒼栝散, 清燥湯, 涼血地黃湯, 當歸和血散, 升陽除濕和血湯”, 暑門 “長夏暑病用, 清暑益氣湯, 暑熱通治, 清暑和中散” 등이 있다.

9. 운기(運氣)에 의한 사시용약(四時用藥)의 대표적인 처방은 임계갑을병(壬癸甲乙丙)년에는 苓朮湯, 黃芪茯神湯, 附子山茱萸湯, 紫菀湯, 黃連茯苓湯 등을 사용하였고, 정무기경신(丁戊己庚辛)년에는 麥門冬湯, 牛膝木瓜湯, 菴蓉牛膝湯, 白朮厚朴湯, 五味子湯 등을 사용하였다.

10. 한의학의 근본원리인 음양오행사상론(陰陽五行四象論)은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체(人體), 약물(藥物), 운기(運氣), 사시용약(四時用藥)에 일관성(一貫性)이 있는 원리로 적용됨을 볼 때 한의학은 과학적인 학문임이 틀림없다.

參考文獻

1. 朴仁圭. 芝山先生臨床學特講(I. Ⅲ. Ⅶ). 서울 : 芝山出版社. 1997 : 50, 127, 393.
2. 張介賓. 類經上·下(影印). 서울 : 大星文化社. 1982 : 29, 41-3, 73, 197-199, 230, 241, 362, 526, 643, 644, 677.
3. 許浚. 國譯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92 : 5, 114-5, 116, 120, 123, 126, 129, 138, 150-2, 190-3, 200, 315, 330, 391, 405, 456-60, 464-5, 467, 471, 476, 488, 490-92, 506, 544, 568, 593, 600, 605-606, 635-9, 645-6, 663-4, 666, 677, 683, 687-9, 707, 708, 777, 808, 813-14, 1091.
4. 陳大舜·曾勇·黃政德 編著. 各家學說(影印). 서울 : 大星文化社. 2001 : 86, 132.
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4 : 216.
6.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太原 : 山西人民出版社. 1979 : 184.
7. 任應秋. 黃帝內經 章句索引. 서울 : 一中社. 1992 : 11, 16-17, 13, 30-31, 126, 209-210, 384.
8. 張介賓. 類經圖翼(影印). 大星文化社. 26-29. 48. 1982.
9.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 大星文化社. 1981 : 27.
10. 蔡仁植, 安秉國, 李炳幸. 國譯編註醫學入門. 內集卷一. 서울 : 南山堂. 1974 : 42-3, 215-46.
11. 李東垣. 東垣十種醫書(影印).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 37, 109-110, 202-203, 342.
12. 李時珍. 本草綱目(影印).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75 : 72-4, 430-1, 491.
13. 吉京柱. 體質韓醫學. 예일출판사. 서울 : 2006 : 28, 157, 158.